

'93. 6月

〈國 內〉

政府는 北方交流 協力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 주요절차 및 방법등을 정함으로써 “특정국가”와의 관계개선 교류·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北方交流 協力에 관한 基本指針을 改正했다.

이에따라 국내 기업들이 구소련 연방 지역들과 베트남에 투자하거나 여행시에 받던 별도의 규제조치들을 앞으로는 받지않아도 된다.

〈日 本〉

日本の 電線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日本電線工業會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日本의 '92년도 전선수요는 109만 39톤으로 전년도의 116만 1,378톤에 비해 7만 1,339톤이 감소, 2년연속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출하도 109만 2,090톤으로 전년도비 7.1%감소했다. 부문별 수주는 通信이 20.3% 증가한 7만 1,228톤을 시현했고 電力부문도 0.2% 증가한 14만 633톤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國 內〉

政府는 오는 '98년까지 研究開發에 대한 投資비율을 국민총생산(GNP)의 3-4%로 늘려 主力産業의 기술경쟁력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고 90년대후반 세계시장의 주력상품이 될 분야의 核心技術을 세계일류수준으로 높여 商品化할 계획이다. 科學技術處·商工資源部 등이 마련한 新經濟 5個年計劃

‘技術開發戰略부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民間企業들의 技術開發에 대한 金融·稅制支援을 강화하고 技術開發에 장애가 되는 행정규제를 크게 완화할 예정이다. 또 政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보강·보완하는 한편 연구개발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가 서부추아스 지구에 80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입, 大型發電所를 건설한다. 이 발전소는 2천년 이후 싱가포르내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으로 완공되면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싱가포르 최대의 발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전력수요는 향후 10년 사이 연평균 7%의 성장을 나타내 올해의 총수요 3천MW에서 오는 2002년에는 550M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國 內〉

商工資源部는 韓電이 독점하고 있는 發電事業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올 상반기중에 民資發電 추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장기전력수급계획에 民資發電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내년에는 민자발전 인허가 기준 및 절차, 매입전력 요금 결정 방법등 민자발전에 관한 업무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印 度〉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5년 동

안 매년 약 40억 달러를 투입, 전기생산능력을 대폭 증가키로 했다. 인도네시아 광업, 에너지부가 발표한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중 전력수요 예측과 發電設備에 따르면 수요는 '93회계년도 680억 KWH에서 매년 신장, '98회계년도는 1,240억 KWH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특히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분야는 공업용 전력 수요로 '93회계년도 489억 KWH가 '98회계년도는 913억 KWH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國 內〉

輸出入銀行은 파키스탄에 72億 원(1千萬달러상당)의 對外經濟協力資金을 提供키로 했다. 이자율 연리 3.5%, 상환기간 17년의 조건으로 지원되는 이번 자금은 파키스탄의 국민개발리스가 發電機·變壓器·보일러·굴착기·덤프트럭등의 장비를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여 자국의 업체들에게 대여하는데 사용케 한다. 이로써 對外協力基金의 지원실적(계약기준)은 나이지리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총 9개국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1億7千萬달러에 달하고 있다.

〈모로코〉

세계은행은 금년 5월 워싱턴에서 춘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로코의 우편통신청에 1억弗 차관 공여를 결정했다. 금번 세계은행의 對 모로코 차관 공여는 모로코가 그동안 꾸준히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해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들어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입자유화 및 외환자유화 조치 등 경제의 對外 개

방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세계은행 및 IMF 등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모로코는 현재 우편통신청(ONPT)의 주관하에 수백만의 전화선 증설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자국내 800개에 달하는 자치지역간 통신연결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12억弗 규모의 통신장비 현대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國 內)

한국과 필리핀은 필리핀의 電力開發 및 에너지자원개발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商工資源部에 따르면 양국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韓·필리핀 자원 협력위원회에서 양국은 필리핀 원자력발전소(Bataan)보수사업에 대한 韓電의 참여와 2005년까지 총 20698MW 규모로 계획돼 있는 필리핀의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대한 한국건설업체의 참여를 위해 양국정부가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또 한국 기업이 개발을 추진중인 순가이 망간광산과 씨스퀘어 크롬광산이 내년부터 개발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中 國)

중국 정부는 오는 95년까지 12개 분야를 주요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이 부문에 대한 개발 투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선정한 12개 주요 기술개발분야는 대규모 화력발전장비, 50만볼트급 초전압 송전장치, 초중량급 석탄 수송장비, 30만톤급 에틸렌 제조

장비, 화학비료 장비, 유전개발기술 등이다.

(國 內)

재무부는 정부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입찰·계약업무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世 界)

유럽전기기술표준기구(CENEL-EC)는 유럽각국의 전기플러그 및 소켓트 시스템의 통일을 위한 유럽표준플러그(Europlug)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유럽 전기전문가들은 각국별로 상이한 플러그-소켓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년전부터 노력해왔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 '92년 '23X'로 불리는 CENELEC의 특별기술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國 內)

상공자원부는 對日수출유망품목으로 반도체 등 37개 품목을 선정, 이들 품목에 대해 해외시장개척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수출촉진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수출이 200만 달러 이상인 주요품목 중 최근 3년간 對日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日本수입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 37개를 찾아내 對日수출확대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신경제 5개

년계획 기간중 총1천억원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해외시장개척기금의 지원시 이들 對日수출유망품목 수출업체를 우대토록 할 계획이다.

또 품목별 對日 주요수출업체에 대해 수출애로사항을 중점관리, 개선책을 수시로 강구하고 貿易協會와 貿公, 종합상사등에 대해 품목별 세일즈맨단 파견과 순회전시회 개최등 對日수출촉진방안을 강구토록할 계획이다.

'93. 7月

(世 界)

미국은 EC와는 별도로 독일과 통신분야 정부조달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 상호간의 무역제재 위협을 제거했다.

미키 캔터 美 USTR 대표는 하원 국가 안보소위 증언에서 양국은 통신분야 정부조달 협정을 체결, 미국이 EC에 대해 취하고 있는 통신분야 입찰참여 제한 조치를 독일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대신 독일은 EC의 정부조달물자 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캔터 대표는 독일은 통신분야의 모든 상품시장을 완전개방키로 했으며 미국도 독일에 대해서는 통신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美·獨간의 이번 협정으로 미국의 對EC 통신장비 정부조달물자 입찰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EC 국가는 모두 4개국으로 늘었다.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등은 애초부터 EC의 정부조달물자 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기때문에 미국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전기 캘린더

금년부터 EC가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 불리한 정부조달물자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한 보복으로 총 17만 6천달러 이상의 EC산 통신장비 정부구매를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EC도 이에 상응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國 內〉

관세청은 현재 5년(또는 3년)으로 돼 있는 첨단기술산업용 시설 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공장자동화기기, 제조용원재료등 減稅물품에 대한 세관의 사후관리기간을 3년으로 2년 단축키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 첨단기술산업용 시설기계류와 기초설비품, 공장자동화기기, 지하철도용품, 연구개발용 기자재등과 운동용구와 같은 특정물품은 3년 ▲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제조용원재료는 제조완료 ▲ 소모성 연구개발용품은 사용완료 확인일로 사후관리를 끝내게 된다.

관세청은 특히 연구개발용 소모성자재 및 원재료등 용도의사용 가능성이 적은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용도대로 설치·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사후관리를 종결하게 된다.

이는 최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데 따라 국내 製造 및 研究開發관련 시설의 改替등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첨단기술산업의 투자지원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쿠웨이트〉

쿠웨이트의 건전지 연간 수요는 약 1,300~1,500t으로 500만弗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걸프전쟁전에는 각종 야외용 회전등과 가정

용 포터블 회전기기용품의 수요가 왕성해 건전지의 수요도 동시에 증가한 바 있다. 전쟁후에는 인구의 감소(32%)로 수요가 일시적이거나 줄어들긴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늘고 있다.

회전기기용 생활용품의 다양화로 70% 이상 일반 규격인 C-Type의 수요가 많고 건전지 사용수명에 따라 탄소아연, 망간, 알칼리 및 니켈 카드뮴 등이 있으나 일반기기 회전용인 탄소, 망간 제품과 정밀기기 등 긴 수명을 요하는 알칼리 2종의 수요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國 內〉

첨단사업·방위산업·선박엔진 및 항공기 부품등 産業別로 지원되는 關稅減免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오는 '98년에 완전 폐지된다. 공장자동화·기술연구용품·공해방지시설·직업병예방용품 등 機能別로 지원되는 관세감면은 앞으로 계속 유지되나 대상품목이 차츰 줄어든다.

財務部는 이같은 내용의 新경제 5개년기간중 관세감면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關稅法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 따르면 정부는 우선 첨단·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減稅率도 줄일 계획이다.

〈日 本〉

일본의 明電舎는 금년도 해외로부터의 자재 및 부품조달액을 전년도보다 50% 증가한 60억엔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엔고 메리트를 노린 것으로 주종 조달품목은

배전반등에 들어가는 기계부품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량기준으로 배 가까운 신장률이 될 계획이다.

동사는 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조달가능한 기계부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자부품 조달도 검토했는데 일본내 조달쪽이 코스트, 품질, 납기등의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주조품 및 주조후에 기계가공한 기계부품 등으로 한정, 해외조달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國 內〉

상공자원부는 수출자유지역의 중고품 수입은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수출입별도공고중개정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고시는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수출입공고상의 별도 공고조항 변동에 따라 조문정비를 위주로 개정한 것으로 일부품목의 수입 및 수출 추천관장 단체를 명시, 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美 國〉

미국의 유력 배터리 메이커인 레이오백(Rayovac)사가 재충전이 가능한 알칼라인 배터리 생산에 성공, 곧 시판에 나서기로 했다.

캐나다의 배터리 테그날리지사로 부터 기술을 도입, 생산하는 이 배터리는 알칼라인 배터리로는 최초의 축전지다.

〈國 內〉

상공자원부는 공해방지를 위해 오는 10월경부터 수은이 1ppm이상 함유된 망간 및 알칼리건전지

전기 캘린더

에 대해서는 판매 및 유통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해건전지의 국내생산은 물론 수입까지 금지되게 됐다.

〈國 內〉

앞으로 제조업체의 모든 시설재 구입과 첨단기술 습득, 주요 원자재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 등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재원으로 하는 외화 대출이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과 통화의 적정관리를 위해 외화대출 대상을 확대, 중전에는 대기업의 첨단기술 산업용과 중소기업체의 일반 시설재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모든 제조업체의 시설재에 대해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용만 지원대상이었던 비제조업체의 시설재에 연구기관 연구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 첨단기술 습득 △ 주요 원자재 확보 △ 수출시장 확보 △ 비교우위 상산업종의 생산기지 이전 등을 위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日 本〉

일본의 東京電力은 외국제품의 구매조달금액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美國製의 원자력발전소 관련설비의 도입으로 94년도에는 금년대비 3배인 4백50억엔, 95년도엔 6백억엔으로 늘려 갈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 일본의 무역흑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 미국등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확대 압력이 한층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는 외국제품의 구매조달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東京電力의 연간 구매금액은 연료를 제외, 1조에 달하며 이중 외국제품조달은 90년도에 90억엔, 91년도엔 외국제대형 컴퓨터의 도입으로 2백억엔에 달했으며 금년에도 조달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현대 제품변압기의 우수성이 인정되면 계속해서 구매하는등 외국제품의 조달금액을 늘려가기로 했다.

〈國 內〉

상공자원부는 '25.8KV GCB 차단기(옥내용)'등 87개 기술개발과제를 '93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1차 신규과제로 선정, 3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해당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기술개발과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산업현장의 공통예로기술로서 작년에 실시한 공업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한 개발 계획 공모와 약 1천명으로 구성된 산·학·연 전문가의 심의를 걸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상공부는 이들 과제의 개발을 위해 금년중 총 131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아래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에서 69억원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이 62억원을 부담토록할 계획이다.

〈캐나다〉

1회용 건전지를 충전, 재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건전지가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관련업계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캐나다 Battery Technologies Inc.가 개발한 이 제품은 알카리 성분으로 이루어진 건전지로서 25회 이상 충전사용이 가능하며 1회 충전시 사용수명도 일반 건전지와 마찬가지로 30일 이상 지속된다.

또한 이 건전지는 니켈, 카드뮴 건전지의 평균 보관수명보다 월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Stephen Meldrum 부사장에 의하면 이 건전지의 평균 보관수명이 5년 이상이나 지속된다고 밝혔다.

〈國 內〉

국내 重電機器 최대 수요처인 韓電이 내년부터 오는 '95년까지 3년동안 전선·변압기등을 총 1조 7천여억원 어치를 구매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내수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던 重電業界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韓電의 「'94~'96년 中期物資購買計劃」에 의하면 이기간중에 전선류 6천7백억원, 개폐기류 5천 5백19억원, 변압기류 2천4백22억원, 감시제어시스템 등 각종 설비 2천1백69억원등 4개 송배전관련 중전기에 대해 모두 1조6천8백 20억원 어치를 구매할 예정이며 특히 전선류는 매년 2천10억~2천 4백억원 어치를 구매할 예정인데 이는 전선조합이 한해동안 수주한 단체수계약 몰량 5백50억원의 4배에 달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수요에 비해 과잉생산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오던 전선업체의 기대가 크다.

〈國 內〉

韓電技術研究院은 세계 최초로 대전력 수송이 가능한 7백65KV 2

전기 캘린더

회선 초고속 시험선로를 건설하는데 成功함으로써 해마다 20% 이상씩 증가해 20~30년후에는 최대 전력이 8천만KW('93년 현재 2천4백만KW)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송의 포화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

同 研究院이 지난 '90년부터 6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 건설한 이 선로는 가용입지의 제약과 지상권 확보가 어려운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2회선으로 설계·건설한 것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설계 및 시공수준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7백65KV 선로는 절연강도가 높아 선로나 기기의 사고율을 대폭 낮춰 선로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러시아〉

러시아의 A/O Energomashexport는 최근 북경에서 華能國際電力개발공사(HIPDC)와 북경에 러시아산 발전기 4기를 1억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HIPDC가 85년 설립된 이래 舊소련과 러시아로부터 발전기를 수입하는 4번째 계약이다.

이번 계약은 14만킬로와트 2기와 18만킬로와트 2기의 발전기 공급이며 북경과 HIPDC가 공동 출자하는 합작사업프로젝트인 북경 폐열발전소에 사용된다.

북경 동부지역에 있는 이 플랜트는 46억원(8억700만달러)이상의 총투자액중 2억8500만달러가 외국 자금이다.

〈國 內〉

韓電은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93~'97)동안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해 총 1천1백억원의 자금을 重電業界에 支援키로 했다.

韓電이 지원하게 되는 총 1천1백억원의 자금은 · 자사보유기술 및 산업재산권 무상제공과 중소기업의 전력공급 설비확충·보강 및 진단에 5백억원 · 중소기업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용역 및 인력자금 지원에 1백억원 ·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제도 도입 및 연구자금으로 5백억원등 모두 4개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濠 洲〉

濠洲 반덤핑국은 韓國產 저압절연전선에 덤핑 무혐의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번 덤핑조사는 제소업체들의 집요한 재심요청에 따라 2년여 가까이 진행돼온 것으로 91년 9월 2일 조사 실시 이후 91년 12월 13일 무혐의 예비판정, 92년 2월 28일 무혐의 최종판정을 받은바 있으나 제소업체들이 이에 불복, 호주 연방법원에 재심을 청구, 연방법원이 재심명령을 내림에 따라 세관이 재심을 실시, 금년 5월 14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國 內〉

상공부자원부는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키위해 에너지 절약 및 과급효과를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건물·수송·전기 분야에서 40개 연구과제를 선정, 올해 총 3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선정된 연구과제는 지난해 에너지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 대학등 5천여개 업체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 선정된 100개 중요 기술개발과제중에서 선정된 것이다.

〈國 內〉

정부는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기술전쟁에서 우리경제가 제도 약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분석, 기술혁신을 산업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해 산업정책의 수단과 조직을 '기술드라이브'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통해 '산업기술진흥종합대책'을 마련,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발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國 內〉

수입품의 性能確認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계류 및 산업설비의 輸入決濟조건이 완화된다. 또 해외에 투자진출한 기업이 수익금으로 재투자하는 절차도 간소화된 다.

財務部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機械類 및 産業設備의 성능확인 후 대금지급결제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360일로 연장해 주기로 하고 오는 10월 외환관리규정개정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성능확인후 대금지체는 기계류 및 산업설비를 一覽拂 조건 信用狀

거래로 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아 가능하며 성능확인후 결제비용은 20%까지, 결제기간은 180일로 제한되고 있다.

또 성능후 지급비용이 20%를 웃돌거나 180일이 초과되는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으나 허가를 극히 제한 하고 있어 업계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日本〉

일본의 大崎전기공업은 중국 天津市의 天津第三電表廠등과 공동으로 電力量計생산 합작회사 天津三達電器有限公司를 설립기로 했다.

일본의 전력량계 메이커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회사 자본금은 1백5만달러이며 출자 비율은 天津第三 75%, 大崎 21%, 중의통상 4% 이다.

이 회사에서는 가정용이 중심인 單相二線式 전력량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처음엔 5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國內〉

공업진흥청은 경제의 민간자율화 촉진과 경제규제 완화를 위하여 사전의무검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고 업체 스스로 자율적인 검사를 실시토록 하므로써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수출검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國內〉

과학기술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개발 준비금 적립등 기술

개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자가 과학기술처장관에 신고토록 하는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제를 폐지하여 민간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특정연구개발사업 협약대상기관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포함시켜 기술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기술개발촉진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獨逸〉

舊서독 전기업계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업계단체인 독일전자기계공업회(ZVEI)는 93년 업계생산액이 전년보다 7%감소하고 취업자수도 연말까지 작년말 수준보다 7만명이 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에는 개선 조짐도 있으나 독일내 시장의 수주·출하가 예상이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ZVEI는 업계 전체의 영업실적은 내년에 들어서야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ZVEI에 따르면 금년 1-5월중 舊서독의 업계 생산액은 전년실적보다 10%감소했다. 통신기기관련분야가 호조를 보인 반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기 및 계측기기, 에너지관련 장치에서 생산감소가 두드러졌다.

〈日本〉

일본의 三洋전기는 機器내장형의 소형축전지인 니켈카드뮴(니카드)電池생산을 해외로 이전키로 했다.

현재 생산량의 80%를 국내 생산하고 있으나 앞으로 수출용 量産타입을 중심으로 해외로 대체, 오는 96년까지 해외생산비율을 3분의 1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동사는 현재 니카드전지를 월3천7백만개 생산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洲本공장에서, 해외에서는 멕시코·홍콩·인도네시아등 3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圓筒型등 量産타입 수출용 니카드전지로 앞으로 해외거점에 생산설비를 이전해 갈 방침이다.

'93. 8月

〈國內〉

상공자원부는 기술개발지원책의 일환으로 韓電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중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등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상공부에 따르면 韓電의 연구개발비를 이용해 산·학·연 공동사업으로 추진중인 중전기 기술개발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제조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술기준으로 고시, 우선 사용토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과 수출산업설비 자금등을 활용, 양산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전기사업협회등 설계관련단체 및 전기공사협회등 시공관련단체에 대해 개발제품 사용을 권고

해 나가기로 했다.

〈日 本〉

엔 고정적으로 일본기업의 하청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미쓰비시·히타치등 綜合電氣機器 메이커들이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하청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펴고 있다.

구체적 움직임을 보면 미쓰비시電機는 일감이 적어진 AV(音響·映像)기기 관련 하청기업에 관리 사원을 파견, 미쓰비시이의 기업으로부터의 수주를 늘리도록 지도하기 시작했으며 히타치제작소도 전담팀을 구성, 자동차용 전자부품 하청업체의 업종전환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종합전기메이커들의 생산거점 해외이전으로 일어나는 하청기업의 고용문제나 급격한 경영악화를 완화시켜, 독자적인 힘으로 살아남게 하기 위한 것이다.

〈國 內〉

공업진흥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험검사기관 공인제도를 실시한다. 공진청은 정부·단체·업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검사기관간 상호인증제도를 실시,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시험검사기관 공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인제도는 국가적 권위를 부여받은 인정기관(공진청)이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국제적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

는 제도로 대부분의 EC국가와 미국·캐나다등 30여국에서 실시중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국내에서 적은 비용으로 각종 인증을 받아 외국의 재검사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世 界〉

90년대 들어 세계 공장자동화시장이 정보통신공학과 결합되면서 급팽창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제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장자동화시장이 최고의 신장률을 과시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미래 산업중 하나인 환경산업분야에서 공장자동화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스위스의 인테크노 컨설팅사는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세계 공장자동화시장이 90년대 중 연평균 6%씩 성장, 오는 2천년경 총규모가 917억마르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뒤셀도르프전시협회(NO-WEA)의 의뢰로 조사된 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공장자동화시장 규모는 538억마르크를 기록했는데 이중 395억마르크는 공장자동화관련 상품 및 자동화시스템이 차지했고 143억마르크는 자동화관련 기술 등 각종 서비스가 차지했다.

〈國 內〉

공진청은 과당경쟁으로 품질상의 문제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야기되는 KS허가

제품인 스티로폴과 가정용 소형변압기등 12개 품목, 1,450개사에 대한 특별공장검사를 8월중 실시기로 했다.

공진청에 따르면 산업표준화법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KS허가업체에 대한 공장검사가 사실상 폐지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KS허가를 얻은 공장에 대한 공무원 방문이 엄격히 제한됐으나 최근 일부 KS품목의 품질이 기준에 못미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특별검사를 실시기로 했다.

〈이집트〉

이집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 총 52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조치 및 44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등을 포함한 대폭적인 수입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수입개방조치는 당초 예상보다 대폭적인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이 조치로 수입금지 품목은 현행 78개에서 26개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전선은 수입개방 및 수입감시 품목으로 분류되고 모터는 수입관세 인하품목으로 분류되었다.

〈國 內〉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품질경영운동이 국내 모든기업에게 경영전략으로 채택되고 실천되도록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산품품질관리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진청이 품질경영의 목표와 실천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품질경영기본 계획을 수립, 고시함으로써 기업이 이를 참고로 품질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명칭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국제표준화된 공산품제조공급자의 품질보증시스템을 인증하는 인증기관과 인증과 관련된 지도·훈련등을 담당할 연구기관을 지정, 민간자율적으로 품질보증시스템인증을 실시하도록해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수출증대의 애로요인을 제거하도록할 계획이다.

(國 內)

조달청은 외자구매품목의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規格·價格分離入札대상을 품목당 4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낮추는등 외자구매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산품이 없어 외국에서 구매하는 외자구매물품의 90%이상이 性能위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규격·가격 분리입찰방식이란 입찰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 동시 접수받아 우선 규격입찰서를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입찰자의 가격 입찰서만을 별도로 지정일시에 입찰자 참여하에 개찰하는 사전 品質 및 性能보장을 위한 입찰방식이다.

(이 란)

이란은 Pars Electric社 등 23개 제조업체에서 쿨러, 히터, 냉장고, 세탁기, 흑백TV, 스위치, 플러그, 트랜스포머, 인쇄회로기판 등을

생산하고 있다. 기술 수준은 70년대 수준이며 국내 생산으로 수요의 20% 정도를 충족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컬러 TV의 생산은 9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연간 7만대 수준에 그쳐 국내 수요(40만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그리고 냉장고의 경우 수요는 100만대이나 국내 생산능력은 65만대 수준이다.

최근 기술 향상 및 생산력 확대를 위해 화란의 필립스, 스웨덴 일렉트로릭스, 독일 지멘스, 일본 도시바 등 다수의 외국 업체로부터 부품, 원료, 기술이전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Pars Electric社는 3천대의 PC, 초미니 컴퓨터, 반도체 등 컴퓨터부품 생산라인을 일본으로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國 內)

상공자원부는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 시행에 들어갔다.

상공부가 개정 고시, 시행에 들어간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전 1천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보유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채용과 함께 전기안전관리보조원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했던 것을 2천킬로와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1천킬로와트를 넘는 전체 사업장(3107개)의 절반정도인 1,500여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선임의무가 면제, 업계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게 됐다.

상공부는 또 정기검사대상 설비의 경우 현재 증기터빈 및 내연기

관은 2년마다 발전기는 1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하고 있는 것을 모두 2년주기로 일원화, 매년 검사를 받는데 따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世 界)

中國은 韓國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분야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임으로써 머지않아 이 부문도 중국우위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韓國貿易協會가 조사·분석한 '중국무역의 발전과 우리의 대응'에 따르면 韓·中산업의 우위비교에 있어 현재 한국만이 輸出特化하고 있거나 한국의 수출특화정도가 중국보다 매우 높은 품목은 고무제품·사무용기기·비금속제품·여행용품·의류·신발·잡제품 등 13개품목으로 조사됐다.

貿協은 중국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교우위는 세계주요시장에서 우리제품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우위인 자본·기술집약적 품목에서조차 중국의 수출성장률이 한국을 크게 상회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國 內)

산업피해구제 신청절차가 크게 간소화 된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시장개방과 수입자유화 확대로 외국으로부터의 덤핑 공세 및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가 증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청서식을 품목별 특성에 맞춰 개선

전기 켈린더

하고 첨부자료 제출도 간소화 시키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개선을 통해 신청서식을 산업피해조사신청서의 경우 공산품, 농림수산물, 무역 및 유통서비스, 지적재산권 침해등 4개 분야와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서등 총 5개분야별로 별도로 마련했다.

〈日 本〉

일본 富士電機는 1993년 6월 22일 중국에 단상모터를 주최로한 소형모터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1994년 7월부터 생산을 계획한다고 발표하였다. 생산제품의 70%는 일본을 시작으로 전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30%는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등 현지에 공급할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단상모터는 에어컨용 팬모터 등의 수요가 급증함과 함께 일본계 에어컨 메이커의 중국 진출이 잇달아 있으므로 현지에 제조거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새로운 회사 명칭은 「大連富士馬達有限公司」로 6억엔을 투자 변경성 대연시의 경제기술개발구 가운데에 설치되며, 단상 모터를 주최로한 소형모터의 부품가공에서 조립까지 일괄 생산한다. 회사자체는 금년 7월중에 설립할 예정이며 공장은 내년 7월 1일에 조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자본금은 5억엔으로 본사가 100%출자하는 자회사로 단상모터의 설계·개발을 담당하는 부사전기정기를 통하여 출자한다.

〈國內〉

한국에서 발급되는 국제품질보증시스템(KS 9000/ISO 9000)인증

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길이 트이게 된다.

공업진흥청은 한국의 대표적 품질인증 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호주 국가표준기관인 호주표준협회(SA)가 상호인정 협정체결을 승인함에 따라 표준협회에서 한국·호주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표준협회가 발급하는 KS 9000/ISO 9000인증서는 호주표준협회에서 발급하는 AS 3900/ISO 9000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되며 향후 호주정부의 구매나 입찰참여 또는 호주 수출시 요구되는 ISO 9000인증서를 대신할 수 있음으로써 호주내에서의 한국상품 품질신뢰도를 높이고 호주수출에 대한 무역장벽도 해소시킬 수 있다.

〈日 本〉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서부통합전력회사로부터 출력 26만킬로와트 화력발전설비 2기를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 화력발전설비는 걸프전쟁 후 최초의 대용량 발전플랜트 풀턴키상담으로 관심을 끌어 왔는데 미쓰비시측의 그동안 실적이 평가돼 이번 수주에 성공했다.

동사는 85년 라비그화력발전소에 25만킬로와트의 발전플랜트 4기를 납품한 것을 비롯 지금까지 사우디에 모두 21기, 480만킬로와트에 달하는 발전설비 납품실적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국은행이 인도네시아의 발전소건설에 차관을 제공기로 했다.

발전소는 인도네시아 기업과 해외기업이 건설하며 발전용량은 40만KW로 계획돼 있다.

중국은행은 총사업비 3억달러중 80%인 2억4천만달러를 용자해줄 계획이다.

용자조건은 상환기간 10년, 금리 연8%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인도네시아 기업 이외에 중국기업 2社와 구미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日 本〉

NEC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기업 연합이 태국-말레이시아간 약 1500킬로미터를 연결하는 光해저케이블을 수주했다.

수주액은 약 110억엔, 금년 가을께 착공, 94년 8월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光해저케이블네트웍 건설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간등 4개 루트의 발주가 완료됐는데 모두 일본기업연합이 수주했으며 이번 수주로 주요 5개 루트 모두를 일본기업이 휩쓴 셈이다.

〈日 本〉

일본의 東京전력은 古河전기공업 荒川화학공업과 공동으로 地中送電케이블 접속시 사용하는 신세정제 'TAY-알과'를 개발했다.

이 'TAY-알과'는 6만볼트이하의 지중송전케이블의 접속부에 사용하는데 케이블의 불량 절연사고는 대부분이 접속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종래엔 프레임은 113으로 미세한 먼지와 쓰레기를 세정해 왔었다.